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18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수입산 호밀 대체 가능성 확인-3면	원예작물과	제주일보
○	트리티케일 ‘수입산 호밀 대체 조사료’ 가능성 확인-6면	원예작물과	삼다일보
○	‘사례 중심’ 기초 영농 기술 교육 호응-15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제주도농업기술원 현장교육-10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기고]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팜 -14면(고덕훈)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청정 제주의 블루베리 내 몸에는 ‘땡큐 베리’ -6면	-	제주매일
○	사람과 농촌 잇고 제주 농업·농촌 가치 확산-9면	-	제주매일

(제주일보: 2026년 5월 18일)

○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수입산 호밀 대체 가능성 확인-3면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수입산 호밀 대체 가능성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새로운 사료작물인 '트리티케일'이 수입산 호밀을 대체할 조사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한 작물로, 가축 기호성과 영양성이 우수한 밀의 장점과 추위 및 쓰러짐에 강한 호밀의 장점을 동시에 갖췄다.

최근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산 호밀과 달리 자가 채종이 가능하고 종자 가격도 저렴해 국내산 조사료 확대를 위한 대체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도내에서 트리티케일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ha 규모로 시작한 실증 사업을 올해 7.4ha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

시리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서귀포시 축산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시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86점으로 나타났다. ▲공급 확대 필요성(90점) ▲실증 지속 추진 필요성(90점) ▲수량성(86점)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평가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트리티케일이 제주지역 사료작물로 적합성이 높고 생육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재배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트리티케일과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혼과 재배 비율 설정과 한우 사료 급여 시 기호성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5.18. 제주일보 3면

(삼다일보: 2026년 5월 18일)

○ 트리티케일 ‘수입산 호밀 대체 조사료’ 가능성 확인-6면

트리티케일 ‘수입산 호밀 대체 조사료’ 가능성 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수입산 호밀을 대체할 조사료로써 ‘트리티케일’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트리티케일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표선면 가시리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서귀포시축산협동조합과 공동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축산농가 등 48명이 참석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86점으로 나타났다. 공급 확대(90점), 실증 지속 추진 필요성(90점), 수량성(86점)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트리티케일이 제주지역 사료작물로 적합성이 높고 생육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재배 확대 가능성에 긍정적인 의

견을 제시했다. 트리티케일과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혼과 재배 비율 설정과 한우 사료 급여 시 기호성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에 적합한 혼과 재배 기술을 검토하고 축산농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료 급여 기호성 검증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또 2027년부터 도내 축산협동조합과 공동 실증을 확대해 트리티케일의 사료작물 적합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원은 도내 트리티케일 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ha 규모로 실증사업을 시작한 후 올해 7.4ha까지 확대했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한 새로운 사료작물로, 가축 기호성과 영양성이 우수한 밀의 장점과 추위 및 쓰러짐에 강한 호밀의 장점을 동시에 갖췄다. 최근 전국적으로 트리티케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수입산 호밀과 달리 자가재종이 가능하고 종자 가격도 저렴해 국내산 조사료 확대를 위한 대체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samda.com 5.18. 삼다일보 6

(삼다일보: 2026년 5월 18일)

○ ‘사례 중심’ 기초 영농 기술 교육 호응-15면

‘사례 중심’ 기초 영농 기술 교육 호응

○...동부농업기술센터가 지난 4월 8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5회(20시간) 과정으로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을 운영한 결과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달성.

교육 신청자 45명 중 41명이 참여해 36명이 수료하고 5명이 과정을 이수한 가운데 선도 농가 사례 공유와 체험교육은 100% 만족도를 보였고 강사 만족도는 평균 94.8%를 기록.

교육생들은 “실제 사례 중심 교육이 매우 유익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

는가 하면 실습 확대, 작목별 귀농 사례 공유, 계절별 감귤 교육 추가 등 발전적 의견도 제시.

5. 18.

김현종 기자 tazan@samdalibo.com

삼다일보 15

(제민일보: 2026년 5월 18일)

○ 제주도농업기술원 현장교육-10면



제주도농업기술원 현장교육

제주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14일 제주농업기술센터와 제주물마루된장학교를 방문해 청년농업인 2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학교' 현장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미래 신성장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컨테이너 식물공장 견학 △청년농업인 창업 사례 등으로 진행했다. 5.18. 제민일보 10

(제민일보: 2026년 5월 18일)

○ [기고]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팜-14면



고 덕 훈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는 스마트팜

오늘날 'AI'와 '스마트'라는 단어는 빠르게 확산되며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개념이 됐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농업 분야에도 확대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스마트팜'이다. 도입 초기에는 단순한 자동화 설비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이 농업의 미래를 이끄는 도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을 위한 농가와 연구·지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

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스마트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축적되는 생육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농업인의 경험과 노력에 더해 지도·연구기관의 생육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분석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축적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기반이 될 때, 스마트팜은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스마트팜과 함께 농업 분야

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별 환경과 작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거나 신뢰하기보다는 현장의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스마트팜과 AI는 농업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돼야 하며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때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5.18. 제민일보 14

(제주매일: 2026년 5월 18일)

○ 청정 제주의 블루베리 내 몸에는 ‘땡큐 베리’ -6면

청정 제주의 블루베리 내 몸에는 ‘땡큐 베리’

제주산 블루베리 본격 출하...서울 여의도서 판촉행사
단단한 식감 높은 품미, 향산화...주소입 121억 '우뚝'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은 제주산 블루베리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판촉행사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현장 반응을 확인했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지난 15일 여의도 농협재단 빌딩 앞에서 제주산 블루베리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제철을 맞은 블루베리의 5.18.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제주매일 6

이날 행사에서는 블루베리 생과를 활용한 요거트 시식과 함께 시중가 대비 20~30% 할인 판매가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판매가 빠르게 이어지며 행사 종료 전에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는 등 열기를 실감케 했다.

시식에 참여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신선도와 맛, 과즙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며 판매가 활기를 띠었다. 제주산 블루베리는 과육 밀도가 높아 쉽게 무르지 않고 식감이 우수하며 당도가 높고 품미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향산화 성분은 물론 열관 건강과 열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을 갖춘 과일로 알려지며 소비자 관심 또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주산 블루베리의 본격 출하에 맞춰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생산부터 선별·출하에 이르기까지 산지의 노력과 품질 가치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주산 블루베리 판촉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타과수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감귤 외 과수 품목의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다변화를 위한 현장 판촉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박경철 기자

(제주매일: 2026년 5월 18일)

○ 사람과 농촌 잇고 제주 농업·농촌 가치 확산-9면



사람과 농촌 잇고 제주 농업·농촌 가치 확산

제주농협, 16일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본부장 이준협)는 16일 대정읍에서 '2026년 제주농협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신설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은 도시민의 재능과 방문을 농촌 활력으로 전환하고 농촌은 가치를 환원하는 상생형 농촌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제주농협은 지역 공동체와 전국 각지의 국민참여단과 연계해 2026년 제주농협의 슬로건인 '사람을 잇고,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제주농협'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매일 9. 지역별 청년농 육성과 팜스테이 등 다양

한 사업과 국민참여단 활동을 연계함으로써 농업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농업인 소득증대, 농촌 활력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농촌 구현에 힘을 기울인다.

이준협 본부장은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은 단순한 홍보단이 아니라 제주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참여형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제주농협은 현장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제주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재균 기자